

저소득층의 물리적 자원의 상실 및 획득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안정의 매개 역할*

박 선 영

(계명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저소득층이 겪는 물리적 자원에서의 상실과 획득이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들이 경제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경험하는 경제적 안정감이 그러한 상실 및 획득의 영향을 받아 안녕감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남녀 성인 254명을 대상으로 물리적 자원의 상실과 획득, 경제안정, 안녕감의 수준을 살펴보고, 자원의 상실 및 획득 각각이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관계와 이 관계에서 경제안정 수준이 보이는 매개역할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참여자들은 물리적 자원을 약간 잃거나 얻은 수준이고 획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경제안정 및 안녕감과 관계에서 자원상실은 유의한 부적 관계를, 획득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셋째, 자원상실은 경제안정과 안녕감 각각에 대해 유의한 부적인 직접효과를 보인 한편 경제안정의 감소를 통해 안녕감을 감소시키는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 끝으로, 자원획득 역시 경제안정과 안녕감 각각에 대해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이고 또 경제안정을 통한 정적인 간접효과가 유의하여 자원상실과 획득 두 모형 모두에서 부분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실천에서 저소득층 성인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물리적 자원의 상실 및 획득, 경제안정, 안녕감을 활용할 방안과 조사연구에서 가질 수 있는 함의를 찾고 제언하였다.

주제어: 경제안정, 물리적 자원, 안녕감, 저소득층, 자원상실, 자원이론, 자원획득

* 본 연구는 2011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환경에 대응하는 인간기능을 ‘스트레스—대처’ 관점에서 볼 때, 저소득층의 열악한 경제사정은 물리적 여건의 제한을 가져오고 이는 심리사회적 자원이 대처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해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자산(assets)과 연결지어 볼 때, 넓은 의미의 물리적 자원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수입과 여유돈, 저축, 부동산, 생산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예: 재봉틀) 및 가재도구, 가구, 주거 등 뿐 아니라 비가시적인 신용, 교육과 지능, 기술 등의 인적 자본, 그러한 인적 자본의 가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유시간 등도 포함된다(Sherraden, 1991; Hobfoll et al., 2003). 이러한 물리적 자원은 생산적 활동, 심신건강의 보전,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위한 밑바탕이 되어서 기본 생활을 영위하게 할 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이 생애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반면 그 부족은 심신기능뿐 아니라 안녕감을 저해하고 사회환경 속의 역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회복력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Wolff et al., 2009). ‘부족’한 상태에 적응하게 되고 또 획득하는 바가 경험되는 과정에서도 자원의 상실 혹은 획득과 같은 변동은 저소득층의 심신기능 및 안녕에 영향을 주게 된다(Hobfoll et al., 2003).

저소득층이 생활에 대응하며 살아내는 데 소용되는 물리적 자원에서의 상실과 획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심신의 안녕에 분명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 즉, 빈곤이 진행되면서 빈번히 유발되는 자원 상실은 우울이나 불안 등 비자발적인 스트레스반응 증상을 가져올 뿐 아니라 안녕감을 저해하는 반면에 자원의 획득은 안녕감의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예: Strother, 2003; Wolff et al., 2009). 저소득층의 경제적 역경은 빈곤연구에서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고려되고 주로 ‘수입’으로 그 어려움이 단순화되어 대표되는 경향으로 인해 물리적 자원의 상실이나 획득 등 생활과 밀접한 이슈와 이러한 생활경험이 안녕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드물게 파악되었다(Diener and Fujita, 1995; Ennis et al., 2000; Ahnquist and Wamala, 2011).

저소득층의 물리적 자원의 상실 및 획득과 안녕감을 관계지어 보는 노력은 이들의 삶의 가장 바탕이자 스트레스의 근원을 이해하는 일환으로서 중요하지만 그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드물고 그 간의 저소득층 스트레스 연구가 너무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지식의 간극을 메우는 의의가 있다. 나아가 저소득층의 물리적 자원이 단순히 소비와 생존의 이슈에 그치지 않고 미래 삶을 위해 필요한 현재의 안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근거를 밝힘으로써 물리적 자원의 제공과 배분의 의의를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중요한 안녕과의 관계 맥락에서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자원연계’ 혹은 ‘자원제공’의 업무는 자원 부족 및 상실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이전의 상실경험과 현재의 획득경험이 저소득층의 심신기능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나아가 안녕감과 연관되는 맥락 속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물리적 자원의 상실과 획득이 저소득층의 안녕에 영향을 주는 관계의 도식에서 개인이 소속 환경과 상호작용함으로써 형성하게 되는 인식의 특성과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환경 속의 인간’으로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저소득층의 안녕은 사회전반적인 경제환경, 체감물가, 자신의 경제여건에 대한 상대적 인식, 노후생활 등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인식되는 경험인 경제안정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사회인지와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환경으로부터 인간이 받는 영향은 의사소통과 인지적 해석 및 의미 생성 등을 통해 구성된 것이다(Brower and Nurius, 1993).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경제환경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들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한 인지적 이해로서 소속 사회에서의 경제안정감이 어떠한지 그러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환경인식에는 개인의 삶의 경험이 영향을 주어 그러한 인지적 이해 혹은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므로 개인과 환경이 상호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개인 인지 및 안녕의 상호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예는 저소득층이 경기악화라는 환경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가계에 더 쉽게 타격을 받거나), IMF 등 경제위기 시기에 정신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자살자가 증가한 경우들(예: 김의철·박영신, 1999; 은기수, 2005; 김종섭, 2010)에서 개인의 부정적 생활 사건과 심신기능의 약화가 환경적 불안정성의 영향을 받아 안녕감이 피폐해지고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소득층이 개인적으로 겪는 물리적 자원의 상실과 획득경험은 그러한 경제안정성의 수준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자원변동 경험과 환경에의 인식이 다시 안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물리적 자원이 상실되는 개인 경험은 환경에의 인식을 포함하는 경제안정감을 약화시키고 이는 안녕감을 저해할 것이다. 반면 자원의 획득은 비록 환경에 대해 보다 긍정적 관점을 취하게 하여 안녕감도 촉진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위기 및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심신기능 및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그러한 재해로 인해 각박해진 지역사회환경 혹은 환경으로부터의 지지가 안녕에 간접효과를 보이고 자산형성이 경제안정성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예: Kaniasty and Norris, 1993, 1995; Ironson, et al., 1997; King et al., 1998; Chowa and Elliott III, 2011)에 의해 지지된다.

그동안 ‘수입’ 변수를 통해 저소득층의 상황이 대변되었고 실제 물리적 자원의 부족과 상실의 이슈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이 경제안정이 안녕감과 연관되어 고찰된 예는 매우 드물었다. 저소득층이므로 물리적 자원의 부족과 경제불안정이 암묵적으로 당연시 된 경향이 있고 주로 심리적 개념들이 고찰되었다. 이로 인해 물리적 자원의 상실이나 획득과 같이 이들 생활에 천착된 중요한 이슈를 누락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최근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나 경제를 고찰하는 연구들이 이 점을 지적하고 보다 생활에 밀착된 변수들을 고찰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서(예: Heflin and Iceland, 2009; Ahnquist and Wamala, 2011; Chowa and Elliott III, 2011; Corman et al., 2012) 본 연구는 탐색적인 수준이지만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시되는 생태체계 틀에서 저소득층의 스트레스—대처를 확장하여,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물리적 자원상실 및 획득의 각 경험이 경제환경 속에서 경험의 결과인 경제안정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관계가 안녕감을 형성하는 관계구조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저소득층 성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원의 상실과 획득, 경제적 안정, 안녕감의 수준과 이들

1) 저소득층의 체감 물가는 상대적으로 더 쉽게 상승하여 경제불안과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2012. 11. 25).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자원의 상실이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관계와 그러한 관계에서 경제안정이 보이는 매개역할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저소득층 성인들이 경험하는 자원의 획득이 안녕에 영향을 주는 관계와 그 관계에서 경제안정이 보이는 매개역할을 검토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저소득층의 자원상실 및 획득과 안녕감 간의 관계

(1) 자원의 개념 및 자원의 상실과 획득

유기체로서 인간이 환경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원의 개념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대처'에서 대응력을 발휘하게 하는 2차 감정평가(second appraisal)에 필수적이다. 자원의 개념은 빈곤이나 재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연구에서 확장되어 생태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맥락에서 인간의 동기와 행동을 활성화하거나 위축되게 하는 역동적 관계로 연구된다(예: Hobfoll, 1989; 2001; Holahan et al., 1999; Gorgievski-Duijvestein et al., 2005). 특히 단기, 장기적인 경제압박은 저소득층의 금전적, 인적, 생산과 재생산을 위한 도구적인 제반 물리적 자원을 부족하게 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명하는 것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안녕을 저해하게 된다(Sherraden, 1991; Hobfoll et al., 2003).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은 저소득층이 물리적 자원을 보유하고자 하지만 상실되는 현실에 직면해서도 소유하고, 보존하며 다시 또 형성하려 하는 인지행동적 측면과 스트레스 대응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개인이 가치를 두는 자원이 잠재적으로 혹은 실제 상실되는 것이 위협적이므로 빈곤, 폭력, 재해 등 상실이 경험되는 상황에서 긍정적 인지, 정서를 동원하거나 주변 친지의 신용을 활용하는 등 한 영역의 자원을 다른 자원에 투자하고 재투자하여 자신의 자원을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이 증시된다(Hobfoll, 1989; Sherraden, 1991; Hobfoll et al., 2003). 이렇듯 생활 환경 조건에 따라 상실되거나 획득되는 자원은 개인이 바라는 바를 진전시키고 생활향상을 위한 목적에 사용되며 안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저소득층의 기본 자산이 부족하고 빈곤이 진행되면서 건강악화나 부채, 가족갈등 등 상실의 부정적 영향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난다(Hobfoll, 1989; Belle, 1990; Norris and Kaniasty, 1996). 한편 저소득층의 자산(asset) 마련이 삶의 동기를 높이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히 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고 복지제도에도 반영된 바에서 물리적 자원획득의 중요성이 시사된다(Sherraden, 1991; Shobe and Christy-McMullin, 2006).

저소득층의 물리적 자원 상실 및 획득 경험은 양적 연구 뿐 아니라 탈빈곤과 관련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도 파악된다. 저소득층 가구 및 한부모 여성가장에 대한 연구들(조은·조옥라, 1991; 황정임 외, 2005; 장세훈, 2006; 정미숙, 2007; 이혜숙·임은하, 2009; 한겨레 21, 2010; Strother, 2003; Krishna, 2004; Seiling, 2006)에서 물리적 자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첫째, 저소득층의 가계

악화와 장기화되는 빈곤은 물리적 자원 상실과 같은 부정적 사건들과 연관된다. 저소득층은 대개 자원의 상실과 획득 모두를 겪지만 물리적 자원이 위협받고 상실되는 상황은 다른 부정적인 일들도 동시에 혹은 연속하여 동반하므로 충분한 자원을 다시 얻기 힘들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된다. 예를 들면, 가족원의 질환 및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치료비용, 빚 등이 연이어 가계를 악화시킨다.

둘째, 저소득층 성인들이 목적하는 바는 제도권의 이슈인 탈빈곤 혹은 탈복지의존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주류 경제활동을 하며 보다 잘사는 것이다.

셋째, 그러한 경제난 극복과정에서 성공한 참여자들은 교육과 근로 경력을 쌓기 위한 기회의 활용, 다수의 시간제 일 등 방법을 통해 개인적으로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이것이 차후 자원획득의 기반이 된다. 이는 비록 복지제도권의 시각에서는 통제될 일이지만 일과 여유 돈 같은 자원의 획득은 개인 및 가족 생활에 긍정적이고 탈빈곤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덧붙여, 다수의 일을 하여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경제환경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

끝으로, 지역사회의 지지체계들을 통해 자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활센터와 같은 공적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용하다. 공식 및 비공식 사회체계들과의 상호작용은 저소득층이 소속 환경의 경제성장과 유대감을 갖고 안정감을 갖는 데 중요하다(Krishna, 2004).

(2) 자원의 상실 및 획득과 안녕감 간의 관계

자원의 상실 및 획득과 안녕감 사이의 관계를 상정하자면 과연 안녕감이 안정적인 개념인가 혹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가라는 의문이 먼저 제기될 수 있다. 적합한 생활 환경(life niche) 속의 안녕을 추구하는 유기체로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안녕감은 복권당첨이나 중도장애, 수용소 감금과 같은 극단적인 사건이나 외상을 경험한 후에도 이전 상태로 복귀되는 상당히 안정적인 심신의 상태이자 생활에 만족하는 정도로 알려져 있다(Brickman et al., 1978; Diener and Fujita, 1995). 그러나 최근 수 개월 내 생활사건은 안녕감에 영향을 주고, 특히 구체적 자원 목록의 합산점수(sum)를 통해 안녕감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h et al., 1996). 재해로 인한 외상은 장기적으로 여파가 있고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결과도 있어서(Norris and Kaniasty, 1996), 상실이 장기화되는 경우 심신기능 및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추론된다.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위치 및 삶의 질(예: 건강, 생활만족, 안녕)과 관련되는 요인은 수입을 중심으로 고찰되어 그 외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요인에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했고 안녕과 같은 긍정적 심리사회적 기능 보다는 디스트레스, 무망감, 불안 등 부정성에 초점을 두었다(Ahnquist and Wamala, 2011). 사회환경을 고려한다면 수입의 감소 뿐 아니라 생계비, 의식주 자원, 교통비, 의료비 등 물리적 자원 및 그 상실과 같은 경제적 고충을 나타내는 변수를 고려하고, 안녕감과 같은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요인과의 관계가 파악되어 사회복지실천 개입에 응용될 필요가 있다.

경제적 곤란과 안녕감 사이의 관계는 국가 간 비교연구로부터 합의되는 바가 있다. 즉 경제부국 사회구성원들의 안녕감이 안정적이고 수입 보다는 사회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원이 안녕감에 중요한 반면, 경제 낙후국의 경우 수입이나 금전 등 물질자원이 안녕감에 중요하게 나타난다(Veenhoven,

1991; Diener et al., 1993). 이는 한 사회 내에서도 유사하여, 저소득층에게는 기본 생계와 생활 유지를 위한 물질, 일할 여력, 교통수단, 의료 등 물리적 자원이 절실하고 안녕감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저소득층 자원의 획득보다는 상실에 관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는 스트레스 및 안녕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생활사건 보다 부정적 사건에 대한 연구가 보다 많은 현황과 일관되게 취약층에서의 부족과 결핍의 중요성과 함께 그에 대해 초점을 두는 연구경향을 반영하기도 한다. 상실을 포함한 복수의 부정적 사건이 유발되는 빈곤상황은 규제하기 힘든 신체생리적인 스트레스 반응 증상(예: 심장박동 및 질환)을 유발하고 면역체계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분노, 불안, 공격성, 우울의 증가 등으로 심신기능을 약화시키고 자신감과 사회적 지지의 감소 등 사회생활을 방해한다(Ironson et al., 1997; Hobfoll et al., 2003; Wolff et al., 2009). 따라서 '생계악화—심신기능약화—사회기능 및 관계악화'로 연이어 유발되는 상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이 중요해진다. 반면 자원획득과 같은 긍정적 생활사건이 심신기능과 안녕,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삶의 의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이론적으로나(예: Hobfoll, 1989; 2001; Hobfoll and Lilly, 1993), 경험적으로(예: Murrell and Norris, 1984; Wells et al., 1999; Kumar and George, 2013) 지지되고 있다.

자원 상실과 획득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결과는 소수이고 다양하다. 일반인의 10년 장기추적조사(Holahan et al., 1999)에서 자원상실은 디스트레스의 증가에, 획득은 디스트레스의 감소에 유사한 정도의 관련성을 보였다. 한편 도시민민 여성에 대한 9개월 추적조사(Hobfoll et al., 2003)에서 상실이 획득보다 디스트레스에 강한 영향을 주어 부정적인 방향의 변화가 긍정적 변화보다 저소득층에게 강한 영향을 제공했다. 자원변화 경험의 영향력은 수 년과 같이 너무 긴 기간을 상정하기보다 약 6개월 내 최근 유발되는 물리적 상실 경험이 우울, 심리적 디스트레스 등 부정적 심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제안된다(Ennis et al., 2000).

2) 저소득층 성인들의 경제안정과 안녕감 간의 관계

(1) 경제안정의 개념 및 저소득층의 경제안정감

경제적 안정은 가계의 안정, 앞으로 가계가 나아질 가능성, 전체 경제환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 개인 경제사정의 상대적 수준 등 다차원에서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감의 연속선상의 어느 수준을 느끼며 살아간다(조호정, 2011).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처한 경제 환경이 안정되고 주변 사람들과 유사하게 살고 있다는 체험은 삶에 만족하고 안녕감을 경험하는 데 중요하다. 나아가 경제안정은 자신이 전체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절대적으로나 타인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생활이 조금씩 나아진다고 경험하는 것은 저소득층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안녕을 추구하는 것을 보다 촉진할 수 있고 특히 집단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녕에 중요해 보인다(Holahan et al., 1999; Krishna, 2004). 부탄이나 북구 유럽과 같이 사회경제적 안정과 평등 수준이 높은 경우 국민의 안녕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면 사회적인 경제안정감이 안녕감에 중요하다는 것이 시사된다.

'경제안정'은 주로 거시경제체제나 시장의 변동 폭이 크지 않게 안정적인 것을 의미하여 사용되고

개인 차원에서도 담론으로 중시되지만 후자에 대한 경험적 검토가 많지 않다. 경제악화의 영향으로 인한 체험으로 인해 경제안정감이 혼인인구와 시기, 자녀출산계획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고, 인간행동 이론에서도 예를 들면, 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서 두 번째로 꼽히는 안전감과 관련되지만 경험적으로는 드물게 논의되었다. 경제안정의 수준이 반영되는 행복지수나 경제행복지수에 대한 보도에는 대개 사회경제적 요인이 고려되지 않고, 저소득층에 대한 연구일 경우 '경제적 박탈'과 같은 부족과 결핍에 초점이 두어지고 불안정성이 강조되는 형편이다(예: 국민일보, 2013; 동아일보, 2013; Vetter et al., 2006). 개인과 가족이 경험하는 경제안정감의 중요성에 가치를 두면, 비록 양적 연구의 경험적 결과가 부족하더라도 탐색적 연구부터 시작되어야 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이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구성하는 인지적 이해로서 경제안정의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저소득층'의 의미에 절대 및 상대적 자산의 부족이 함의되지만 낮은 경제안정 수준을 당연시 할 수 없다. 경제안정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원동력이 되고, 빈곤정책을 통한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생활의 맥락 속에서 가능할 수 있는 한 방도가 될 수 있다(Ahnquist and Wamala, 2011). 따라서 저소득층이 경제환경에 반응하는 체감으로서 경제안정을 복지욕구의 일환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2) 경제안정과 안녕감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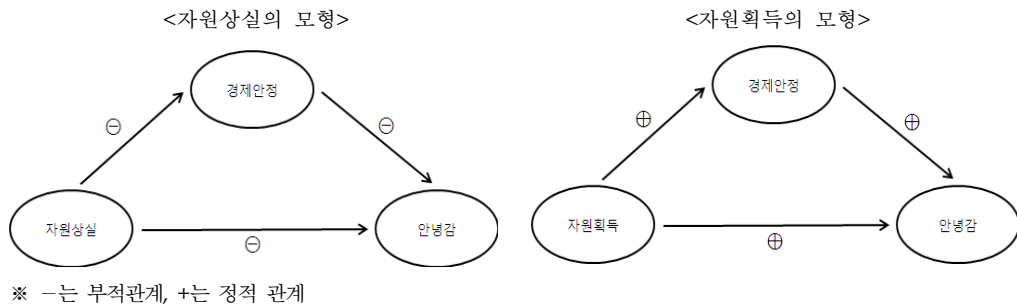
환경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주체(agency)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경제안정은 단순히 환경요인만이 아니라 자신이 현 사회의 경제환경을 얼마나 안정되고 남들과 비교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감내할 정도로 편안하게 여기는지가 인지 틀(schemas)을 통해 반영되는 개인적 요인이다(Berlin, 2002). 사회인지 연구들을 보면 개인이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바 즉 인지가 심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사회적으로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사회인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바와 같이 사회환경에 대한 우호적 인식은 안녕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사회환경을 각박하고 불안정하게 파악하는 인지는 안녕감을 감해할 수 있다(예: Norris and Kaniasty, 1996; Ross, 2000). 따라서 저소득층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소(niche)를 마련할 기회를 찾는 맥락에서 경제안정과 안녕의 수준이 파악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이 처한 경제 상황이 그들의 심신 안녕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정신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경제압박은 적대감과 우울감을 증가시키고(이상문, 2008), 경제난을 겪는 외중의 외상과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여 겪는 디스트레스가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엄태완, 2008). 저소득층 성인의 개인적(예: 자기효능감, 자존감), 사회적(예: 사회적 지지) 자원은 경제적 압박감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안되고(Seiling, 2006) 우울을 포함한 정신적 고통도 완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상문, 2008; Mitchell and LaGory, 2002). 이는 개인의 힘으로 변화시키기 힘든 사회구조적 난관을 함의하는 한편, 이들의 친구나 친지 역시 경제압박 하에 있어서 지원을 제공하기 힘들기 때문일 수 있다(Seiling, 2006).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지원 제도가 정착되었을 때 경제활동이 증가되고 저축이 가능해져서 심신이 안정되는 결과(Shobe and Christy-McMullin, 2006)에서 경제안정의 중요성이 시사되고, 이 경제안정은 안녕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저소득층의 자원 상실 및 획득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경제안정의 매개 역할

자원상실과 획득은 각각 안녕감에 부적 및 정적으로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로서 저소득층이 민감한 경제환경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도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원상실은 경제안정을 감소시키고 경제안정의 감소는 안녕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자원획득은 경제안정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안녕감이 향상될 수 있어서 경제안정의 감소와 상승의 수준이 자원변동과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이러한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와 그 방향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자원상실이 경제안정을 통해 안녕감에 미치는 관계구조의 연구모형

저소득층에서 특히 우려되는 상실의 모형을 유추할 수 있는 기존 결과를 보면, 대규모 폭풍으로 황폐해진 지역의 경제상실은 디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지역환경의 상호 원조에 대한 인식이 이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예: Kaniasty and Norris, 1993; 1995; Ironson et al., 1997; King et al., 1998). 자연재해 지역에서의 상실 경험은 사회환경을 더욱 각박하게 인식하게 하고 이는 다시 외상후 증상의 악화 등 안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Kaniasty and Norris, 1993; 1995). 또 가족 및 사회환경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폭력을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은 소속 환경을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것으로 인지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인지는 신경생물체계의 기제를 변화시킬 수 있고 공격성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유발한다(Bradshaw and Garbarino, 2004).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사회경제적 취약층의 대처기능과 인간 회복력 향상을 위해 자원제공을 핵심 과업으로 삼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자원이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영향의 본질이나 다른 심심기능 및 안녕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근거와 이론 개발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 자산(asset)이 부족하고 사회경제 환경조건이 열악한 저소득층이 경제난에 대응해 나가는데 밀바탕이 되는 물리적 자원 및 그 상실과 획득이 보다 나은 삶의 목적이자 적응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들 성인이 체감하는 경제안정이 나타내는 매개역할에 대해 고찰

하고자 하였다.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경제난과 자원상실을 보다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간 차이를 두고 파악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자원에 대한 기초 연구가 부족하고,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상실과 획득 정도를 파악하는 인지기능을 고려할 때 탐색적 연구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7개 지역에 소재한 8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성인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들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일반 및 조건부 수급을 받는 저소득층이었다.

각 자활센터에서 가능한 많은 참여자들이 모이는 일시에 연구자가 설문조사의 의도와 협조사항을 먼저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 응답을 구하였다. 자료수집은 이와 같이 제도 및 기관 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목표로 하는 표본 수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하는 눈덩이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사 절차는, 우선 완성된 질문지를 토대로 잠재적 연구 참여자들 약 4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여 질문지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고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예비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11년 7월에 수행되었고 본조사는 2011년 8-11월에 수행되었다. 본조사 참여자는 총 276명²⁾이었고 이 중 미완성 질문지 22부를 제외한 254부에 해당하는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 도구

(1) 자원의 상실과 획득

저소득층의 생활에 필요한 자원의 상실과 획득을 알아보기 위해 Hobfoll과 Lilly(1993)가 개발한 74 항목의 자원보존평가(Conservation of Resources Evaluation, CRE)를 기본 틀로 하였다. Hobfoll과 Lilly(1993)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자원이 다양하므로 연구자가 상황에 맞게 이 목록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여기서는 김기태 외(2007)가 수정한 CRE 40항목들 중 물리적 자원과 관련되는 17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항목들은 예를 들면, 가구, 음식, 의류, 주거, 수입, 의료비, 교통비, 비상금, 신용, 여유 돈, 자유 시간 등과 관련된다.

2) 본 연구자료를 수집한 8개 지역자활센터 별 참여자 수는 남구지역자활센터 46명, 달서지역자활센터 48명,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 19명, 달성지역자활센터 26명, 대구광역시자활센터 27명, 동구 지역자활센터 28명, 북구지역자활센터 15명, 서구지역자활센터 45명이었다.

자원목록은 생활사건과 같은 체크리스트이고, 경제난 중 물리적 자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도록 해 주는 장점이 있다. 각 응답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므로 신뢰도 계수 보고는 생략된다(Wells et al., 1999). 본 연구에서도 각 자원 항목에 대해 참여자가 최근 6개월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상실 혹은 획득 정도를 4점 척도(해당없음, 조금/많이/대단히 많이 얻었다/잃었다)로 평가하고 이 17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상실 혹은 획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2) 경제안정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경제안정은 현대경제연구원(조호정, 2011)이 개발한 12문항으로 구성된 경제행복지수의 7문항을 사용하였다. 12문항의 요인분석결과 경제안정 및 행복에 해당하는 9문항과 상대적 박탈 및 열등감에 해당하는 2요인이 도출되었다.³⁾ 이 중 9문항이 경제안정 및 행복을 나타내는 요인에 부하되었고, 이 중 2문항은 경제행복을 묻는 항목이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안녕감과 개념적으로 중복되므로 제외하고 7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예를 들면, '나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인 것 같다' 등이다. 각 문항을 6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대부분 그렇지 않다/약간 그렇지 않다/약간 그렇다/어느 정도 그렇다/전적으로 그렇다)로 평정하여 7문항의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안정 수준이 높고 낮을수록 안정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들 7문항의 신뢰도 계수(Chronbach's alpha)는 .80이었다.

(3) 안녕감

본 연구의 초점인 저소득층의 물리적 여건 및 경제상황과 연관되고 경제를 포함한 생활에 만족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총체적으로 개념화하기 위해 안녕감은 각각 단일문항으로 이루어진 생활만족과 현재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 그리고 긍정적 정서⁴⁾의 8문항을 사용해 구성하고 그 합산점수(composite score)도 사용하였다. 긍정적 정서는 Watson 외(1988,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1998에서 재인용)의 정서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이용해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⁵⁾

3) 주축요인분석과 베리맥스회전 결과로 요인 구성을 살펴보았다.

4) 이들은 요인분석 결과 한 차원을 구성하였다. 합산 점수는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되었고 구조방정식모형에는 안녕감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가 관찰변수로 투입되었다. 이들 10문항은 하나의 척도가 아니므로 신뢰도 계수는 생략하였다.

5) PANAS에서 긍정적 정서는 10문항으로 구성되지만 본 연구에서 예비조사를 한 결과 두 문항('정신 바짝차린'과 '흥분된')이 긍정적 정서로 이해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 두 문항을 제외하고 8문항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8문항의 예는 '흥미진진한,' '원기왕성한' 등이다. 이 8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83$ 이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원 상실과 획득, 경제적 안정, 안녕감 각각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둘째, 자원 상실과 획득, 경제적 안정, 안녕감 등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이들 각 측정 변수의 왜도는 2 미만이고 첨도는 3이하여서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키고, 이상점(outlier)은 없었다.

셋째, 자원상실 혹은 획득, 경제안정, 안녕감 사이 관계구조의 적합도와 이론 변수들 간의 관계 경로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모형은 복잡하지 않지만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측정오차를 통제하여 통계 검증력이 낮고 상실모형과 획득모형 각각의 적합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하였다(서영석, 2010). 자원 변수들과 경제안정은 각각 단일 차원으로 구성되어 문항결합(item parceling)을 통해 세 개 요인으로 묶고 나머지 변수들은 해당 문항 혹은 세부척도를 분석에 투입하였다(서영석, 2010). 모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추정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값 뿐 아니라 이보다 표본 크기에 덜 좌우되는 CMIN/df, NFI, TLI, CFI, RMSEA가 사용되었다. 끝으로 자원상실 혹은 획득이 경제안정 및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직접, 간접, 및 총효과를 검토하였다. 이 구조모형분석에서 간접 및 총효과의 유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Bootstrap 분석을 하였다.

4. 분석결과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1〉은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들 중 여성이 198명으로 남성(56명)보다 많았다. 이는 자활센터 참여자들 중 일반적으로 여성이 대다수인 현황과 일관된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20세부터 64세로 평균 약 48세(sd=6.85)이고 교육 기간은 평균 약 11년으로 고졸 이하의 교육수준을 보였다.

참여자들의 대다수(63.1%)가 배우자가 없고 그 사유로는 이혼(93명)이 많고, 그 다음 사별(35명), 미혼(18명), 별거(13명) 순이었다. 참여자들 대다수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74.3%). 거주지는 월세가 가장 많고(40.5%), 그 다음 공공 및 무상 임대(26.6%), 전세(19.8%), 자가(6.0%), 기타(4.4%), 친척 집(2.8%) 순이었다.

〈표 1〉 참여자들의 일반적 사항 (N=254)

		빈도/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성	56
	여성	198
연령(N=251)	20-64	47.82(6.85)
교육연수		10.70(3.06)
혼인상태 (N=252)	기혼	93(36.9)
	미혼	18(7.1)
	별거	13(5.2)
	사별	35(13.9)
	이혼	93(36.9)
종교 (N=253)	무	65(25.7)
	유	188(74.3)
주거형태 (N=252)	자가	15(6.0)
	전세	50(19.8)
	월세	102(40.5)
	임대(공공 및 무상)	67(26.6)
	친척집	7(2.8)
	기타	11(4.4)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표 2〉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수준을 보여준다. 자원상실과 획득 모두 전체 범위 0-88점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자원상실과 획득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하여($t=-4.77$, $df=253$, $p<.001$), 자원상실보다 획득 경험을 유의하게 높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6점 척도를 고려할 때 경제안정(평균: 2.48, $SD=1.00$) 수준은 '약간 안정적이지 않은(3점)' 수준보다 낮고 안녕감(평균: 3.19, $SD=.66$)도 '약간의' 안녕감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심하지는 않지만 경제안정과 안녕감이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간의 관계는 대체로 예측되는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원상실은 자원획득과 가장 높은 수준의 부적 관계를 보였고($r=-.82$, $p<.001$), 경제안정($r=-.33$, $p<.001$), 안녕감($r=-.34$, $p<.0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자원상실이 많을수록 경제적 안정과 안녕이 모두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자원의 획득은 경제안정($r=.46$, $p<.001$) 및 안녕감($r=.38$, $p<.001$)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경제안정은 안녕감과 정적관계($r=.42$, $p<.001$)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원획득이 경제안정 및 안녕감과 관련된 변수들과 갖는 상관관계(평균 $r=.42$)가 자원상실이 갖는 상관관계(평균 $r=.34$)보다 높았다.

〈표 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N=254)

		자 원		경제안정	안녕감	평 균 (표준편차)
		상 실	획 득			
자원	상실	-				16.65(9.54)
	획득	-.822***	-			21.80(8.47)
경제안정		-.331***	.464***	-		2.48(1.00)
안녕감		-.342***	.376***	.422***	-	3.19(.66)

***p<.001

3) 연구모형의 검토

(1) 자원상실 및 자원획득 관계구조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의 자원상실과 획득 각각을 나타내는 두 가지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를 〈표 3〉이 보여준다. 카이자승(χ^2) 값이 자원상실 모형은 무의미하여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고, 획득 모형의 경우 유의하였다. 표본 수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다른 적합도 지수들은 두 모형 모두에 대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 각각에서 NFI는 .95-.96 수준, TLI와 CFI는 .97-.99 수준, RMSEA는 .03-.05 수준으로 양호하였다. 따라서 각 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구조를 검토하고 특히 자원상실 및 획득이 경제안정과 안녕에 주는 직접 및 간접효과를 검토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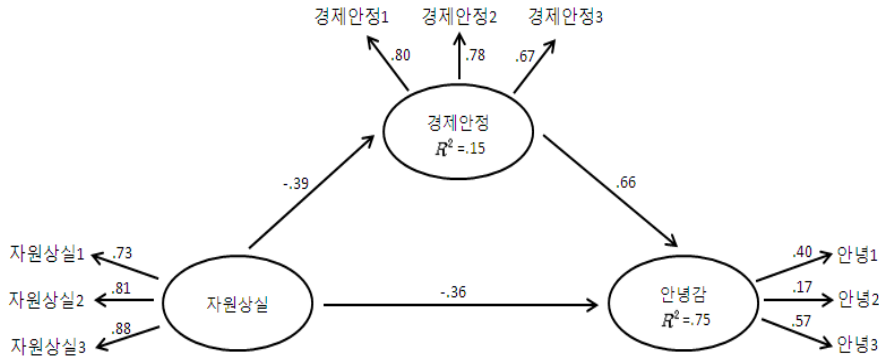
〈표 3〉 자원상실과 획득 모형의 적합도

	χ^2	df, p	CMIN/df	NFI	TLI	CFI	RMSEA
연구모형 1. 자원상실	29.530	24, .201	1.230	.959	.988	.992	.030
연구모형 2. 자원획득	40.359	24, .020	1.682	.947	.966	.978	.052

(2) 자원상실, 경제안정, 안녕감 구조모형의 관계구조 및 효과분해

자원상실과 경제안정 수준이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여기서 제시된 모든 측정 변수들과 잠재 변수들 간의 관계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즉 자원상실은 안녕감($\beta = -.36$)과 경제안정($\beta = -.39$) 각각에 대해 부적 영향을 주어 안녕감과 경제안정 각각을 감소시켰다. 경제안정 수준은 안녕감에 대해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어 경제안정의 감소는 안녕감의 감소로⁶⁾, 경제안정의 증가는 안녕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6$).

6) 〈그림 1〉에서는 자원상실을 고려할 때 경제안정의 감소가 안녕감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감소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마이너스 부호로 표시되었다. 〈그림 2〉에서 부호의 차이가 있는 것은 경제안정



〈그림 2〉 자원상실이 경제안정의 감소?)를 통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표 4〉는 자원상실과 경제안정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간접, 총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보여준다. 자원상실이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 = -.36, p < .01$)와 간접효과($\beta = -.26, p < .05$)는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간접효과는 자원상실이 안녕을 감소시키는 총효과($\beta = -.62, p < .05$)의 약 42%를 차지하고 부분매개모형을 지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 참여자들인 저소득층 성인들의 자원상실은 직접적으로 안녕감을 감소시키는 한편 경제안정의 감소를 통해서도 안녕감이 저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자원상실이 경제안정을 통해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분해

예측변수	내생변수(매개변수 및 종속변수)	
	경제안정	안녕감
자원상실		
직접효과	.393*	-.361**
간접효과		-.258*
총효과	-.393*	-.619*
경제안정		
직접효과		.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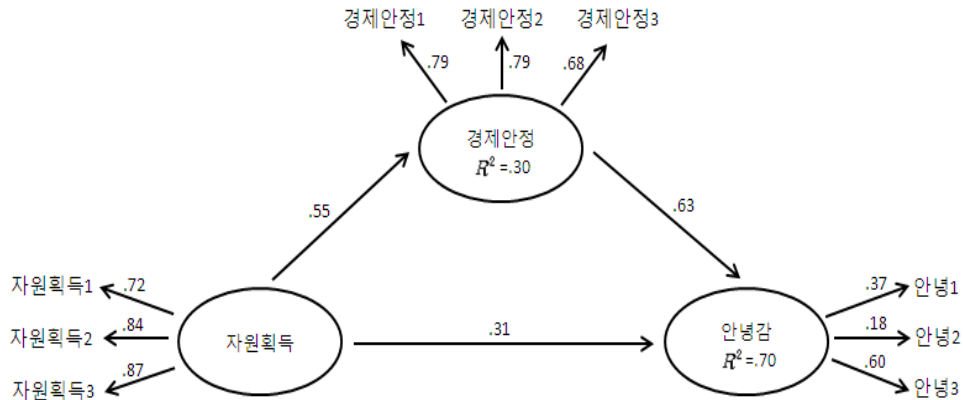
* $p < .05$, ** $p < .01$

과 안녕감의 표면적 의미가 긍정적이고 측정에서 동일 방향으로 평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효과분해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 연구방법의 척도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경제안정과 안녕감 모두 점수가 낮을수록 감소되고 높을수록 향상되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자원상실의 영향에 따라 경제안정이 감소되고 안녕감도 감소되는 식의 정적 관계이므로 이와 같이 표기된다.

(3) 자원획득, 경제안정, 안녕감 구조모형의 관계구조 및 효과분해

자원획득과 경제안정이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자원획득을 중심으로 한 이 모형에 포함된 모든 측정 변수들과 잠재 변수들 간의 관계 역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원획득은 안녕감에 대해 정적 영향을 주어($\beta = .31$) 향상시키고, 경제안정에 대해서도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beta = .55$). 경제안정 역시 안녕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어($\beta = .63$)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자원획득이 경제안정의 향상을 통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

<표 5>는 자원획득과 경제안정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간접, 총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보여준다. 자원획득이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 = .31, p < .05$)와 간접효과($\beta = .35, p < .01$)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간접효과는 자원획득이 안녕감에 미치는 총효과($\beta = .65, p < .01$)의 약 53%를 차지하여 부분매개모형이 지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저소득층 성인들이 경험하는 자원획득은 안녕감을 직접 향상시키는 한편 경제안정의 향상을 통해서도 안녕감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자원획득이 경제안정을 통해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분해

예측변수	내생변수(매개변수 및 종속변수)	
	경제안정	안녕감
자원획득		
직접효과	.548**	.305*
간접효과		.345*
총효과	.548**	.649*
경제안정		
직접효과		.629*

* $p < .05$, ** $p < .01$

4. 논의 및 함의

1990년 말 이후 주기적인 경제악화와 복지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행복, 안녕(well-being), 경제안정과 경제민주화가 곳곳에서 캐치프레이즈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자원제공'이 강조되어왔으나 물리적 자원과 사회환경 속에서 경험되는 경제적 안정이 저소득층 삶의 맥락에서 어떠한 구도로 안녕과 관련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용한지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다. 이에 이 연구는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254명의 남녀 저소득층 성인들을 중심으로 자원 상실과 획득이라는 삶에 친착된 경험이 경제환경의 체험인 경제안정, 그리고 안녕감에 어떠한 관계구도로 영향을 주는지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 연구 참여자들이 경제적 도움, 교통비, 비싼급, 수입, 여유돈, 여유시간, 의료비 등 물리적 자원에서 경험한 상실과 획득의 수준은 약간 낮거나 약간 얻은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획득한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힘든 경제현실에서도 획득한 바가 있고 이것이 긍정적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참여자들은 일자리 및 소득, 노후, 상대적 경제수준, 경제평등 등을 포괄하는 경제안정을 약간 낮게 경험하며, 안녕감은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헌이나 보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소득층 성인들의 체감 경제는 일자리부터 사회적 경제평등 면에서 안정되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시사하는 한편 심각하게 저조하지는 않지만 만족하는 수준 이하를 보이는 안녕감이 향상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자원상실은 기존 문헌을 토대로 예상되는 바와 일관되게 경제안정 및 안녕감과 부적 관계를 보여서 물리적 자원의 유의성을 시사하였다. 한편 상실보다 높은 획득의 수준과 획득이 다른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결과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상실과 획득이 공존하고 물리적 자원에서 얻는 바가 인식되어 긍정적 기능에 영향을 주므로 기존 문헌(정미숙, 2007; 이해숙·임은하, 2009; Strother, 2003; Seiling, 2006)과 일관된다. 이러한 획득한 자원을 인식하는 것은 강점이 될 수 있고 이는 차후 스트레스-대처에서 긍정적인 일상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새길 수 있는 능력(Folkman, 1997)을 고양하는 개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구조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검토한 결과, '자원상실—경제안정—안녕감'의 구조모형이 상대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인 것은 저소득층의 자원과 경제안정 및 안녕감이 상실의 모형으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Wells et al., 1999; Hobfoll et al., 2003)와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모형 각각이 부분매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물리적 자원의 상실은 기존 문헌을 토대로 예상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경제안정과 안녕감을 직접 감소시키고, 경제안정의 감소를 통해서도 안녕감을 감소시켰다. 반면 물리적 자원의 획득은 경제안정과 안녕감을 향상시키고 경제안정의 향상을 통해서도 안녕감을 향상시켰다.

이 결과는 저소득층의 물리적 자원의 상실 혹은 획득이 안녕감에 중요하다는 것과 그러한 경험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경제 환경과의 경험 즉 경제안정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소득층의 안녕감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부 지지되는 것은 기존 연구결과(예: Kaniasty and Norris, 1993, 1995; Ironson et al., 1997; King et al., 1998)와도 일관된다. 아울러 각 모형에서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R^2 = .75$ and $.70$)이나 자원상실 및 획득의 안녕감에 대한 총효과 대비 직접효과의 비율(58% vs. 47%)로 볼 때 자원상실이 안녕감에 대해 보이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록 연구적도는 다르지만 상실 및 획득이 안녕감 뿐 아니라 디스트레스에 대해 유사하게 혹은 상실이 더 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기존 연구(예: Holahan et al., 1999; Wells et al., 1999; Hobfoll et al., 2003)와 일관된다. 한편 자원상실 및 획득이 경제안정을 매개로 안녕감에 간접효과를 주는 영향력이 자원획득모형에서 보다 크다는 결과로부터 개인에게 긍정적 사건으로서 물리적 자원의 획득이 중요하다는 것이 기존 연구(Murrell and Norris, 1984; Wells et al., 1999; Kumar, and George, 2013)와 일관되게 본 연구에서도 지지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사회복지실천 및 연구에 함의하는 바는, 첫째, 저소득층의 전반적 자원상실과 획득, 경제안정, 안녕감의 수준이 저조한 가운데에서도 안녕감이 상실과 획득, 경제안정의 영향으로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에게 물리적 자원이 중요하고 또 그러한 자원의 상실이나 획득에 의해 안녕감이 변화할 수 있다(Diener and Fujita, 1995)는 것을 보이는 근거가 된다.

둘째, 자원상실과 획득이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과는 사회복지실천의 사정(assessment)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겪는 자원의 상실과 획득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 내용과 심도가 어떠한 압박이 되어 안녕감을 감소시키거나 역량을 강화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한 대응력이 되는지 면밀히, 입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내용 파악에서는 '문제'와 '필요'라는 정태적인 편린을 중심으로 사정하기 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최근 자원의 상실이나 획득과 같이 개인적 가치가 부여되는 일을 생활 속에서 맥락화하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저소득층의 상실에 대한 대처와 의미, 대안, 안녕에 주는 영향 등과 연결지어 사정할 필요가 요구된다. 특히 자원상실이 중복해 발생하고 빈곤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조기개입이나 예방사업을 마련하는 데에도 이러한 자원과 사회환경 속의 경제안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근거에 기반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제안정의 수준은 저소득층이 지역사회 생활 속에서 개인 내적으로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체험되어 처리된 인지정보이므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시사하는 사회인지를 활용하는 것을 지지해 준다. 본 연구결과로 볼 때 자원의 상실이 경험되는 경우 경제안정의 감소는 개인과 가족에게 위기감을 더하여 안녕감이 더욱 감소될 수 있다. 이것이 사회복지실천에 주는 함의는 '위기 사례' 혹은 위기개입을 수행할 때 자원에서의 이러한 변동 경험과 경제안정감, 그리고 안녕감의 관계들을 연관지어 지역 환경 속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에 대한 총체적(holistic) 구도로 이해할 필요성이다. 또 자원획득 경험이 있을 때 경제안정감의 간접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저소득층 성인들이 긍정적 경험(예: 물품, 아동청소년 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 가족행사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실천이 저소득층 성인들의 경제적 안정감 뿐 아니라 안녕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지 파악하고 그렇게 되도록 대안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 중시한 생활환경 혹은 '적소'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상실과 획득, 안녕을 저소득층의 균형 잡힌 적응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자원의 상실 대비 획득의 비율이 어느 정도일 때 저소득

층의 삶이 안정될 수 있을지, 나아가 이러한 관계와 성인기 특성 간의 관련성은 어떠한지 등 사회경제 및 생애주기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지실천의 유의성(clinical significance)이 추후 연구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는 첫째, 연구자료가 2011년 후반기에 수집되었으므로 이 결과를 현재에 비추어 보는 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변수들은 저소득층의 삶의 인지행동적 경험을 반영하므로 경기변동에 관한 기술적 조사와 다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인용된 최근 보도와 같이 저소득층 체감 경기나 생활은 계속 녹록치 않고 이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이 계속 사회적 화두가 되므로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한 광역시에 국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전역의 저소득층 성인들의 경험을 대표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상이한 특성이 있는 다른 지역의 저소득층 성인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자원의 상실과 획득을 참여자들이 최근 경험에 비추어 판단한 횡단 자료에 기초하여 검토하였다. 차후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자원 상실과 획득을 시차를 두어 장기적으로 고찰하여 자원변동의 흐름에 따른 관련변수들에서의 변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 심리 및 사회적 자원과 상대적 비교를 통해 물리적 자원의 변동이 안녕감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 다집단비교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여 좀 더 면밀히 저소득층 내 다양성을 파악하여 사회복지실천에서 저소득층 생활 사정에 따른 개별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편, 1998, 『심리척도핸드북』. 서울: 학지사.
- 김기태·최송식·박미진, 2007, “노인의 심리사회적 자원과 스트레스 및 우울과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38: 383-416.
- 김의철·박영신, 1999, “IMF시대가 한국인의 스트레스에 미친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4(1): 57-79.
- 김종섭, 2010, “경제위기와 자살: 한국과 중남미 3개국의 비교”, 『라틴아메리카연구』, 23(3): 45-65.
- 박경숙·김남줄·김수영·김진수·나금실·박병철·손태홍·이상문·최희경, 2005, 『빈곤의 순환고리들』, 동아대학교 출판부.
- 서영석, 2010, “상담심리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엄태완, 2008, “빈곤층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8: 36-66.
- 은기수, 2005, “경제적 양극화와 자살의 상관성: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한국인구학』, 28(2): 97-129.
- 이상문, 2008, “빈곤계층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3년간의 패널연구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3): 119-152.
- 이혜숙·임은하, 2009, “빈곤가정의 빈곤화 과정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 255-294.

- 장세훈, 2006, “빈곤층의 내부 구성과 빈곤화과정”, 『경제와 사회』, 71(가을): 179-291.
- 정미숙, 2007,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가족 경험과 빈곤화 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적 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은·조옥라, 1991,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호정, 2011, “경제 행복지수 1위 대구, 꼴찌 강원”, 『Economy Insight』, 11: 24-26.
- 황정임·송치선·전지현, 2005,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경향신문, 2012, “저소득층일수록 물가고통 크다”, 2012년 11월 25일.
- 국민일보, 2013, “한국인 생활만족도 2위 주요 국가중 꼴찌”, 2013년 1월 8일.
- 동아일보, 2013, “행복지수와 경제, 어떤 관계가 있나요?”, 2013년 1월 21일.
- 한겨레 21, 2010, “영구빈곤보고서”, 2010년 3월 24일.
- Ahnquist, J., and Wamala, S. P., 2011, “Economic hardships in adulthood and mental health in Sweden”, *The Swedish National Public Health Survey 2009*, *BMC Public Health*, 11: 788-798.
- Belle, D., 1990, “Poverty and women’s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5: 385-389.
- Berlin, S., 2002,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A Cognitive-Integrative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Bradshaw, C. P., and Garbarino, J., 2004, “Social cognition as a mediator of the influence of family and community violence on adolescent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036: 85-105.
- Brickman, P., Coates, D., and Janoff-Bulman, R., 1978, “Lottery winners and accident victims: Is happiness rela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917-927.
- Brower, A. M., and Nurius, P. S., 1993, *Social Cognition and Individual Change*, Newbury Park, CA: Sage.
- Chowa, G. A. N. and Elliott III, W., 2011, “An asset approach to increasing perceived household economic stability among families in Uganda”, *Journal of Socio-Economics*, 40: 81-87.
- Corman, H., Noonan, K., Reichman, N. E., and Schultz, J., 2012, “Effects of financial insecurity on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Socio-Economics*, 41: 574-583.
- Diener, E. and Fujita, F., 1995, “Resources, personal strivings, and subjective well-being: A nomothetic and idiographic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26-935.
- Diener, E., Sandvik, E., Seidlitz, L., and Diener, M.,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5: 195-223.
- Ennis, N. E., Hobfoll, S. E., and Schroder, K. E. E., 2000, “Money doesn’t talk, it swears: How economic stress and resistance resources impact inner-city women’s depressive mood”,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2): 149-173.
- Folkman, S., 1997, “Positive psychological states and coping with severe stres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5(8): 1207-1221.
- Gorgievski-Duijvesteijn, M. J., Bakker, A. B., Schaufeli, W. B., and von der Heijden, P. G. M., 2005, “Finances and well-being: A dynamic equilibrium model of resource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0(3): 210-224.
- Heflin, S., and Iceland, J., 2009, “Poverty, material hardship and depression”, *Social Science Quarterly*,

90: 1051-1071.

- Hobfoll, S. E., 1989, "Conservation of resources, A new attempt at conceptualizing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4(3): 513-524.
- Hobfoll, S. E., 2001, "The influence of culture, community, and the nested-self in the stress process: Advancing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0(3): 337-421.
- Hobfoll, S. E., Johnson, R. J., Ennis, N., and Jackson, A. P., 2003, "Resource loss, resource gain, and emotional outcomes among inner city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632-643.
- Hobfoll, S. E., and Lilly, R. S., 1993, "Resource conservation as a strategy for community psycholog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 128-148
- Holahan, C. J., Moos, R. H., Holahan, C. K., and Cronkite, R. C., 1999, "Resource loss, resource gain, and depressive symptoms: A 10-yea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3): 620-629.
- Ironson, G., Wynings, C., Schneiderman, N., Baum, A., Rodriguez, M., Greenwood, D., Benight, C., Antoni, M., Laperriere, A., Huang, H. S., Klimas, N., and Fletcher, M. A., 1997,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trusive thoughts, loss, and immune function after Hurricane Andrew", *Psychosomatic Medicine*, 59: 128-141.
- Kaniasty, K., and Norris, F., 1993, "A test of the social support deterioration model in the context of natural disas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395-408.
- _____, 1995, "In search of altruistic community: patterns of social support mobilization following Hurricane Hugo",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3:447-477.
- King, L. A., King, D. W., Keane, T. M., Fairbank, J. A., and Adams, G. A., 1998, "Resilience-recovery factors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female and male Vietnam veterans: Hardiness, postwar social support, and additional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420-434.
- Krishna, A., 2004, "Escaping poverty and becoming poor: Who gains, who loses, and why?", *World Development*, 32(1): 121-136.
- Kumar, P. N. S. and George, B., 2013, "Life events,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and quality of life in attempted suicide: A case-control study", *Indian Journal of Psychiatry*, 55(1): 1-7.
- Lazarus, R. S. and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NY: Springer.
- Mitchell, C. U., and LaGory, M., 2002, "Social capital and mental distress in an impoverished community", *City and Community*, 1(2): 199-222.
- Murrell, S. A., and Norris, F. H., 1984, "Resources, life events and changes in positive affect and depression in older adul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2: 445-464.
- Norris, F. H., and Kaniasty, K., 1996, "Received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imes of stress: A test of the social support deterioration deterrenc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498-511.
- Ross, C. E., 2000, "Community-level socioeconomic status effects on adult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9: 18-37.

- Seiling, S. 2006, "Changes in the lives of rural low-income mothers: Do resources play a role in stres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13(1), 9-41.
- Sherraden, M.,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 E. Sharpe, Inc.
- Shobe, M. A., and Christy-McMullin, K., 2006, "Joining an asset building program: The social and economic correlates", *Journal of Evidence-Based Social Work*, 3(1): 61-78.
- Strother, P. A., 2003, "Exit from poverty: How "welfare mothers" achieve economic viability",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7(3/4): 97-119.
- Suh, E., Diener, E., and Fujita, F., 1996,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Only recent events mat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91-1102.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34.
- Vetter, S., Endrass, J., Schweizer, I., Teng, H., Rossler, W., and Gallo, W. T., 2006, "The effects of economic depriva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he working population of Switzerland", *BMC Public Health*, 6: 223-232.
- Watson, D., Clark, L. A., and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ells, J., Hobfoll, S. E., and Lavin, J., 1999, "When it rains, it pours: The greater impact of resource loss compared to gain on psychological distr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1171-1182.
- Wolff, B. C., Santiago, C. D., and Wadsworth, M. E., 2009, "Poverty and involuntary engagement stress responses: Examining the link to anxiety and aggression within low-income families", *Anxiety, Stress and Coping*, 22(3): 309-325.

The Influence of Physical Resource Loss and Gain on Well-Being of People in Low-Income and the Mediating Role of Economic Stability

Park, Sunyoung
(Keimyung University)

Physical resources are central to coping with economic hardships for people in low-income, yet life experiences such as resource loss and gain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a sense of well-being received scarce attention. Thus this study investigated levels of loss and gain of physical resources, economic stability and well-being of 254 adults who participated in welfare-to-work programs; correlations and paths among these variables; and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economic stability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ajor results were: first, the levels of resource loss and gain were below a moderate level and the level of gai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loss level. Second, in the relationships with both economic stability and well-being, resource loss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hile resource gain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Third, the negative direct effect of resource loss either on the economic stability or on the well-being respectively was significant and the indirect effect on well-being through economic stability was also significant. Finally, the direct effect of resource gain on either economic stability or well-being was significant; and the indirect effect of resource gain on well-being was also significant. Thus in both models for resource loss and gain, the indirect effect of economic stability was significant, which supports partial mediation model.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research were examined, particularly for enabling social work practice to utilize information regarding resource loss and gain, economic stability, and a sense of well-being that were embedded in the community life of people in low-income.

Key words: economic stability, physical resource, sense of well-being, people in low income, resource loss, resource gain

[논문 접수일 : 13. 04. 06, 심사일 : 13. 04. 12, 게재 확정일 : 13. 05. 06]